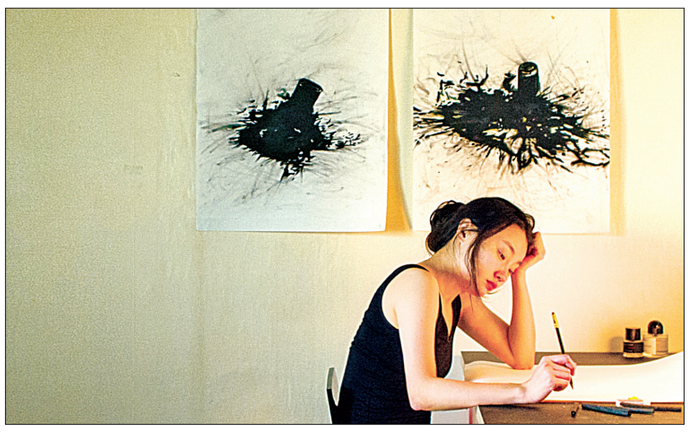
비움도 채움도 '不二'…'禪'적 상징 담은 불교영화

서보형 감독 영화 '벗어날 탈脫'
2월 21일부터 전국 극장서 개봉
모든 관계 끊고 수행하는 영목과
끝남 두려워하는 지원의 이야기
두 구도행이 던지는 메시지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벗어날 탈脫〉 스틸 컷. 오로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남자 영목〈사진 왼쪽〉과 전시를 위해 영감을 얻으려는 여자 지우〈사진 오른쪽〉의 이야기를 다뤘다.

남자 '영목(임호준 분)'은 자신을 비우는 수행을 한다. 죽음을 느꼈기에 절박하다. 죽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에 여자친구와도 이별하고 108배와 좌선에 매달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술 작가 '지우(위지원 분)'는 전시를 위한 영감을 얻고자 한다. 그녀는 끝남이 두려워 엔딩에 이르기 직전의 순간만을 그린다.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골몰하는 그녀에게 갑자기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2월 21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개봉되는 서보형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 〈벗어날 탈脫〉(Not One And Not Two)은 감독 자신이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매일 108배와 명상을 하던 시기에 우연히 체험한 오묘한 순간을 영화적 언어로 펼쳐낸 작품이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각의 순간을 깨달음을 구하는 '영목'과 영감을 구하는 '지우'의 순간을 통해 드러냈다.

장편영화로의 데뷔지만 서보형 감독은 단편 영화 〈탈날 탈〉과 〈솧〉으로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솧〉으로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단편의 얼굴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을 비롯해 미장센 단편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 한국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탈날 탈〉은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이번에 개봉되는 〈벗어날 탈脫〉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서 초청되며 "도발적인 시각적 전위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자기만의 속도와 유머를 만들어낸다" 등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불일불이(不一不二)'다. 그랬기에 영문 제목도 'Not One And Not Two'다.

서보형 감독은 "선불교에 몰두해 화두를 붙잡고 매일 108배와 명상을 하던 때가 있었다.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여 몇 년을 괴로워하던 중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이것뿐인 오묘한 자각을 체험했다"면서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이것을 영화적 언어로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不一不二)'는 불교철학을 적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인물 모두 죽음과 끝(The End)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도를 행하고 사유하지만, 결국 두 인물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독특한 서사 구조에 서보형 감독은 자신의 전매특허인 4:3 화면비의 회화적 미장센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지며 매혹적인 영상미를 선보인다. 이는 본래 미술을 전공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개인전을 갖기도 한 서보형 감독의 독특한 이력이 있어 가능했다.

런닝타임 72분 동안 영화는 모호하며 알쏭달쏭한 상징들이 이어진다. 명확하지 않아 난해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화의 장면을 곱씹게 된다. 사실 선가(禪家)의 108공안들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담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불교영화 〈벗어날 탈脫〉 속 구도의 상징과 비유를 읽는 건 오롯이 관객의 몫이다.

'100일 공개' 칠불사 아자방, 체험하려면 '지금'

민속유산 지정 기념해 일시 개방
2월 7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하루 3차례, 30명 인원 제한키로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직접 안내


하동 칠불사 아자방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동안거 기간 한 번 불을 때면 100일간 온기가 유지된다고 알려진 하동 칠불사 '아자방(亞字房)'이 지난해 12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된 것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 스님)는 칠불사 아자방의 국가민속문화재 승격과 지정을 기념해 2월 7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한시적으로 일반에 개방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와 3시 하루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 체험행사는 참여인원을 회당 30명으로 제한하고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이 직접 안내한다.

행사 참여인원은 주지 도응 스님의 안내에 따라 아자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으며 잠시 앉아 온기를 느낄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칠불사는 지리산 문수보살의 기도처인 동국제일선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1세기경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왕자가 출가하여 성불한 가야의 불교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곳이다. 아자방은 독특한 형태의 선방으로 스님들이 벽을 향해 수행할 수 있도록 방 안 네 귀퉁이를 바닥면보다 한 단 높게 구성함으로써 한자 '亞'모양의 아자형(亞字型) 방 전체에 구들을 놓아 만든 온돌방이다.

아자방은 1976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17년 진행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와편·기단석·확돌 등 고려시대의 유물과 함께 여러 기록 자료에 의해 아자방 온돌은 선방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칠불사 아자방은 옛 선비들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남긴 각종 지리산 유람록, 일제강점기 발행됐던 신문기사 등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칠불사는 불교사적 의미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 및 아(亞)자 형태의 특징과 민속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승격 신청하게 되었고 5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2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불자님들과 방문객들이 별천지 하동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 칠불사 아자방 온돌에 오셔서 따스한 온기와 신비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칠불사 총무 홍법 스님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분들과 부처님의 큰 가피에 보답하는 스님들께 가사를 지어드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불사는 이번 가사불사를 통해 모연된 가사는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께 대중공양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해 스님 '님의 침묵' 오케스트라로 만난다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2월 25 · 27일 광주 · 대구서 공연
시 낭송, 비보이, 무용 '콜라보'도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3.1절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자 김기원)는 2월 25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대극장과 2월 27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3·1절 기념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의 시작은 서기철 전 KBS 아나운서의 '님의 침묵' 낭송이 알린다. 이때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시벨리우스의 즉흥곡(Impromptu)을 배경음악으로 선사하며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서곡(Overture Finlandia)'도 선보인다. 만해 스님의 삶과 문학, 애국정신을 소개하는 파트에서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Op72. 2번'이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낭송가 박종선은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나의 꿈'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등을 잇따라 낭송하며 낭송 중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자이자 제97호 도살풀이 전수자인 무용가 정은선이 춤사위를 펼친다.

제2부의 시작은 댄서 서승현이 비보잉 공연으로 막을 오르며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공연과 테너 최용호와 극단 '파발극회'가 '독립선언문'과 '독립군가'를 선보인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스24'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경기도 광주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연단체로서 2019년 창단되었으며 광주시의 부족한 클래식 공연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된 공연 전문 오케스트라다. 신중일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고가구·병풍 3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설치 합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신제품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75,000원
3일초 40개 ····· 75,000원
1일초 100개 ····· 85,000원
15일초 12개 ····· 105,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